

연말특집 ②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 직업

■ 가치를 돈으로 살 수 있다면

- _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 : ‘권력’과 ‘명예’
- _ 2030세대, 국민전체 비해 ‘살 수 있다’ 응답 높아
- _ 4060세대, 연령 높을수록 ‘살 수 있다’ 적어
- _ 보수층과 진보층 인식, 거의 동일
- _ 가치에 가격을 매긴다면 : 건강, 권력, 시간 순

■ 직업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 _ 돈으로 살 수 있는 직업 : ‘국회의원’ 가장 많아
- _ 남자 20대, 다른 2030세대와 차이 있어
- _ 4060세대, 50대만 매우 다른 모습 보여
- _ 진보층, ‘직업’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 강해
- _ 직업에 가격을 매긴다면 : ‘대통령’ 압도적 높아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12월 3일(금) ~ 12월 5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 본 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25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6\%$
가 중 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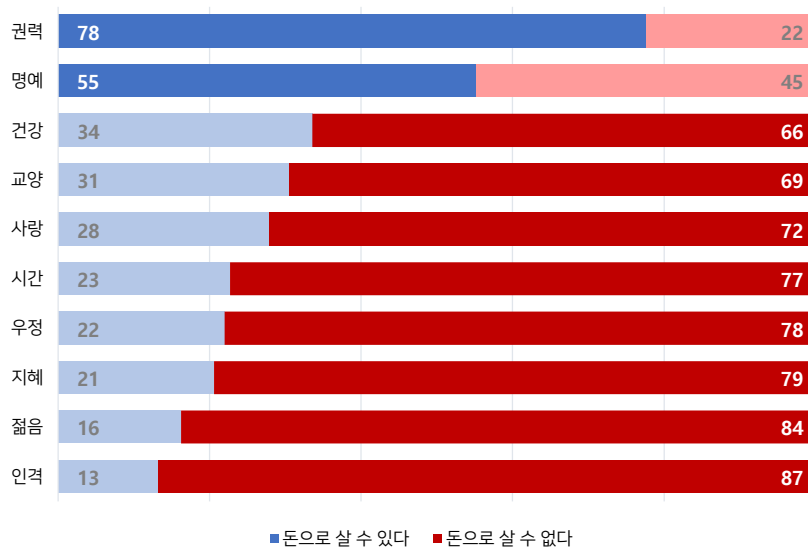
가치를 돈으로 살 수 있다면

□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 : '권력'과 '명예'

-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 중에서 '권력'과 '명예'의 경우,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함
 - “선생님은 지금의 우리사회를 돌아볼 때, 다음 각각의 가치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 후 모두 10가지 가치를 제시한 결과임
- 국민 중 78%는 '권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응답했고, 55%는 '명예'를 살 수 있다고 응답함
- 이에 비해 다른 가치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한 가치는 '인격'이고, 다음으로 '젊음', '지혜', '우정', '시간' 등으로 나타남

가치를 돈으로 살 수 있는지 여부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1.1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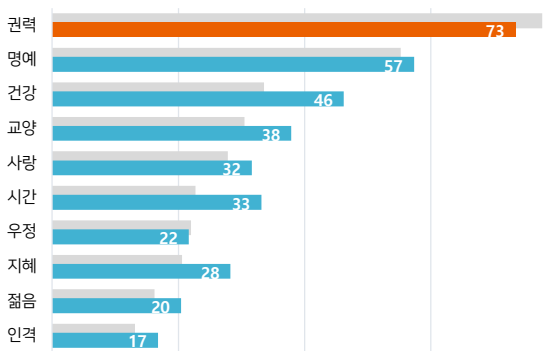
Kstat Point

- ☑ 현대 사회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사회로, 돈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시대임
 - : 마이클 샌델 교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6,250달러를 지불하면 인도 여성을 대리모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고, 이마에 광고 문신을 새기면 777달러를 받는 미국 사회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냄
 - : 샌델 교수는 사회가 '시장경제(market economy)'에서 '시장사회(market society)'로 옮겨갔다고 진단하고,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이 시장가치로 환원되고 있다고 지적함
- ☑ 이러한 배경 하에 기획된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권력'과 '명예'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응답함
 - : 다른 가치들에 대해서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국가·사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권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은 매우 시사적임
 - : 즉, 한국 사회 역시 시장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갈수록 돈의 위력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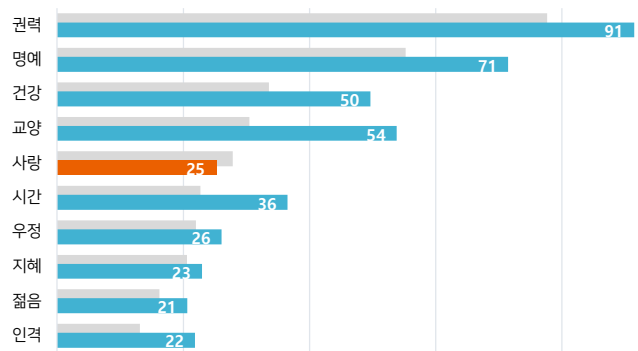
□ 2030세대, 국민전체 비해 '살 수 있다' 응답 높아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2030세대의 경우 남녀 모두 가치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남자 30대는 모든 가치에 대해 국민 전체보다 높은 비중으로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응답함
 -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 전체 '돈으로 살 수 있다' 응답 비중이고, 국민 전체보다 낮으면 주황색 막대로, 높으면 푸른색 막대로 표시함
- 다음으로 남자 18~20대와 여자 18~20대도 대부분의 가치에 대해 국민 전체보다 높은 비중을 기록함
 - 남자 18~20대는 '권력' 한 가지만 국민 전체보다 낮고, 여자 18~20대는 '사랑' 한 가지만 낮음
- 여자 30대 역시 대다수 가치에 대해 국민 전체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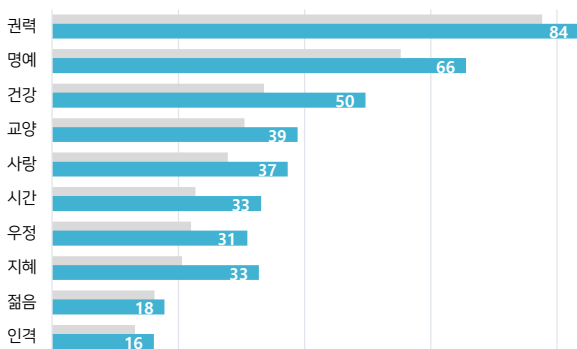
가치, '돈으로 살 수 있다' 비중 : 20대 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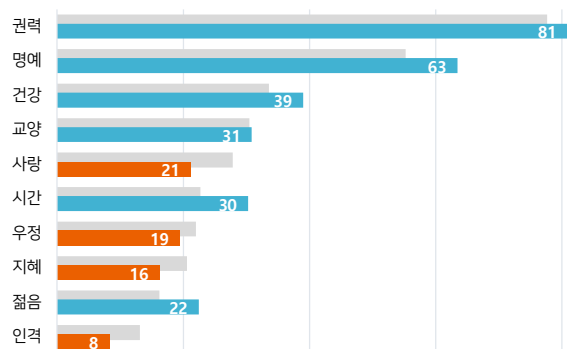
가치, '돈으로 살 수 있다' 비중 : 20대 여 (단위:%)



가치, '돈으로 살 수 있다' 비중 : 30대 남 (단위:%)



가치, '돈으로 살 수 있다' 비중 : 30대 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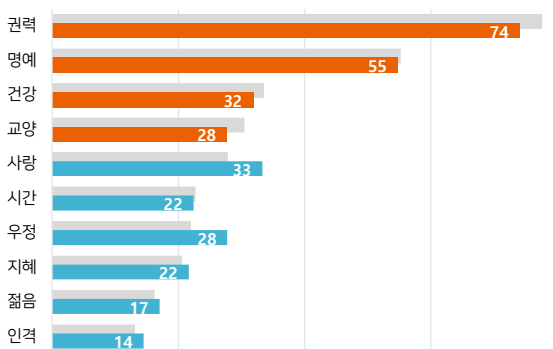
Kstat Point

- ☑ 2030세대는 돈으로 가치를 살 수 있는 사회, 즉 '시장사회' 이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 '권력'과 '명예'는 충분히 돈으로 살 수 있고, '건강'이나 '교양'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상당한 수준에 이름
- ☑ 특히 '권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인식이 매우 강한데, 이는 '권력'이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자 그들 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는 비판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 :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젊은 층이 '공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권력'을 장악한 소수 특권층(우파, 좌파 정당 모두 포함)이 국가·시스템을 그들에게만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강력한 불만 때문임
 - : 이러한 생각은 미국을 비롯해 서구 국가 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포퓰리즘'의 동력이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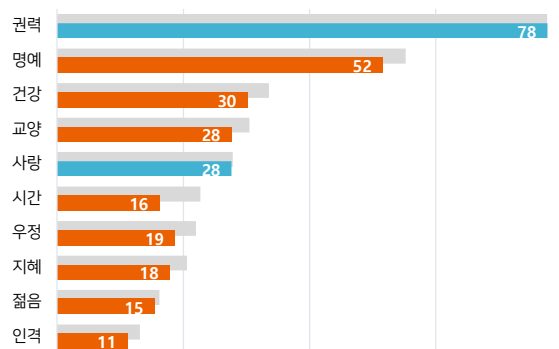
□ 4060세대, 연령 높을수록 '살 수 있다' 적어

- 4060세대는 전반적으로 2030세대에 비해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응답 비중이 낮음
 -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 전체 '돈으로 살 수 있다' 응답 비중이고, 국민 전체보다 낮으면 주황색 막대로, 높으면 푸른색 막대로 표시함
-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응답이 적어지는 특징을 보임
 - 국민 전체보다 낮은 응답을 기록한 가치를 세어 보면 40대는 4개, 50대는 8개, 60대 이상은 10개 전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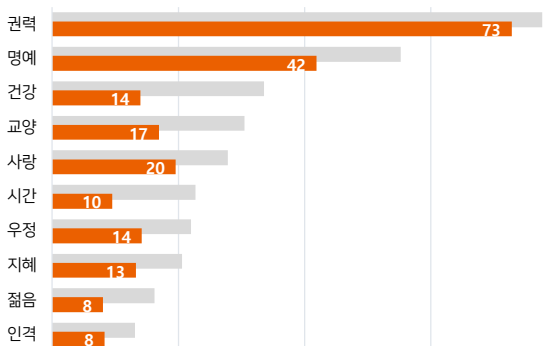
가치, '돈으로 살 수 있다' 비중 : 40대 (단위:%)



가치, '돈으로 살 수 있다' 비중 : 50대 (단위:%)



가치, '돈으로 살 수 있다' 비중 : 60대이상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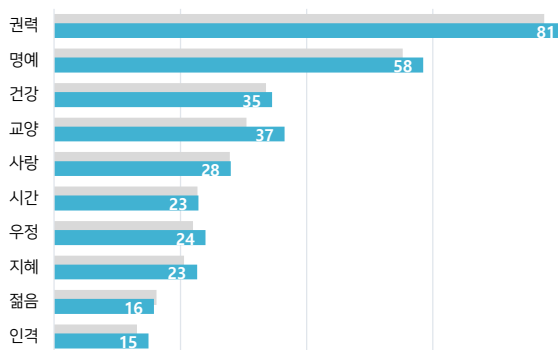
Kstat Point

- ☑ 60대 이상은 모든 가치에 걸쳐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비중이 국민 전체보다 낮음
 - : 이는 사회 가치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 힘들었던 과거 시대의 소산임
 - : '시장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60대 이상의 생각은 과거의 유물이 되고, 50대도 과거적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임
 - : 앞서 보듯 2030세대는 '시장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에 조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음
 - : 5060세대와 2030세대의 중간적 시기를 살고 있는 40대는 '시장사회'에 대한 인식도 중간적임
- ☑ 한편, '권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은 4060세대에서도 매우 뚜렷함
 - :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 되다시피 한 '권력'과 이에 따른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은 나이를 떠나 한 국민 모두의 공통된 인식으로 분석됨
 - : 우리 국민의 71%는 우리나라 정치가 시대에 뒤떨어진 소수 특권층에 의해 좌우되고 있고, 국민의 의견과 관심사를 대변하는 일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13호 『민주주의와 개인자유 국민의식 분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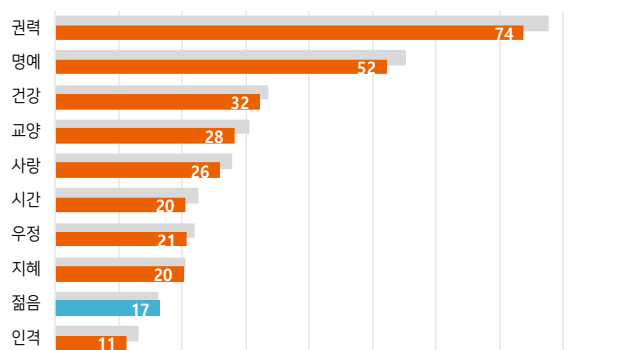
□ 보수층과 진보층 인식, 거의 동일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과 진보층은 국민 전체에 비해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응답 비중이 높고, 그 비중이 거의 동일함
 -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 전체 ‘돈으로 살 수 있다’ 응답 비중이고, 국민 전체보다 낮으면 주황색 막대로, 높으면 푸른색 막대로 표시함
- 중도층은 거의 모든 가치에 대해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비중이 국민 전체보다 낮음
 - 국민전 체 보다 높은 가치는 ‘젊음’ 하나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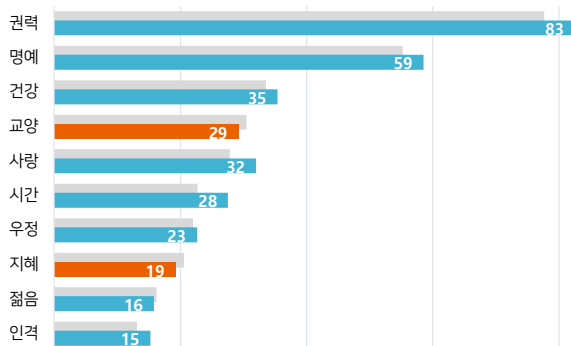
가치, '돈으로 살 수 있다' 비중 : 보수층 (단위:%)



가치, '돈으로 살 수 있다' 비중 : 중도층 (단위:%)



가치, '돈으로 살 수 있다' 비중 : 진보층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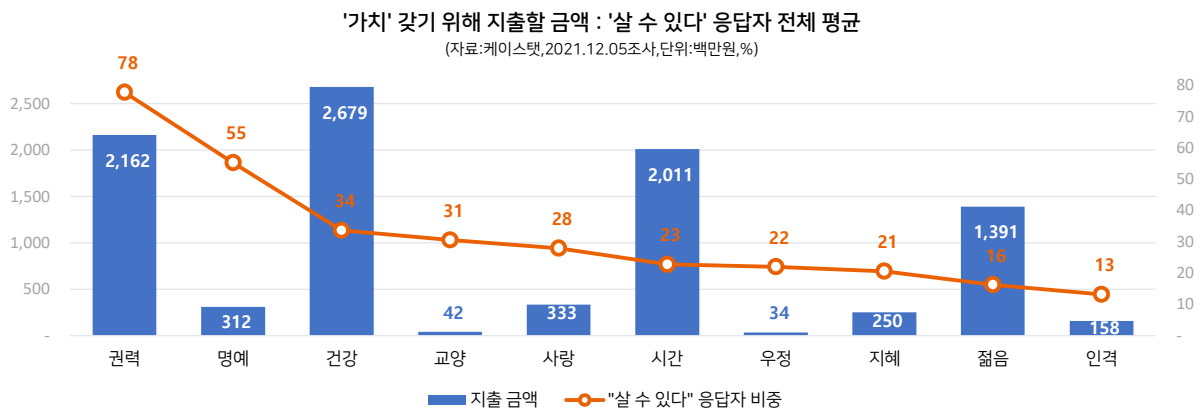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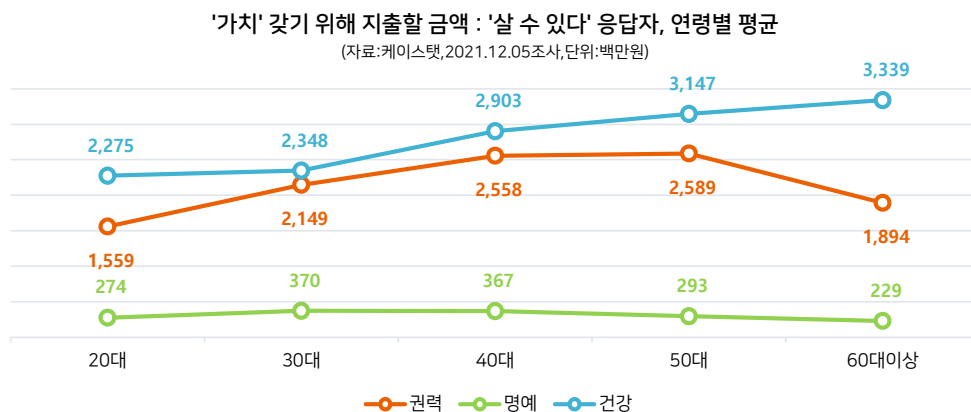
- ☑ 통상 보수층은 시장친화적이고 진보층은 시장불신적이지만, 이번 조사의 경우 보수층과 진보층 간의 차이가 없음
 - : 보수층과 진보층 모두 사회 가치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국민 전체보다 높음
- ☑ 시장친화적인 보수층의 태도는 자연스럽지만, 시장불신적인 진보층의 태도는 모순적이라는 지적임
 - : 한국 사회의 이념지형이 서구 사회처럼 시장에 대한 태도에 기반하기보다 과거 민주화 시대의 ‘민주 vs 반민주’ 대립구도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 즉, 한국 사회의 진보는 과거 민주세력의 자리 이동일뿐 엄밀한 의미에서의 진보와 거리가 있음

□ 가치에 가격을 매긴다면 : 건강, 권력, 시간 순

- 가치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응답자들은 ‘건강’을 가장 높게 생각하고, 다음은 ‘권력’, ‘시간’, ‘젊음’ 순으로 조사됨
 - “만약에 선생님이 세계적인 부자로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가치를 갖기 위해 얼마의 돈을 지출하시겠어요?”라는 질문 후 자유롭게 액수를 기입토록 한 결과임
- 응답자 평균 금액은 ‘건강’ 26억7900만원, ‘권력’ 21억6200만원, ‘시간’ 20억1100만원, ‘젊음’ 13억9100만원 등임
 - 지출 금액이 가장 낮은 가치는 ‘우정’으로 3400만원이고, 다음은 ‘교양’ 4200만원 등임
- 한편,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응답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명예’는 평균 3억1200만원을 기록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건강’은 연령이 높을수록 금액이 높아지고, ‘권력’은 40대와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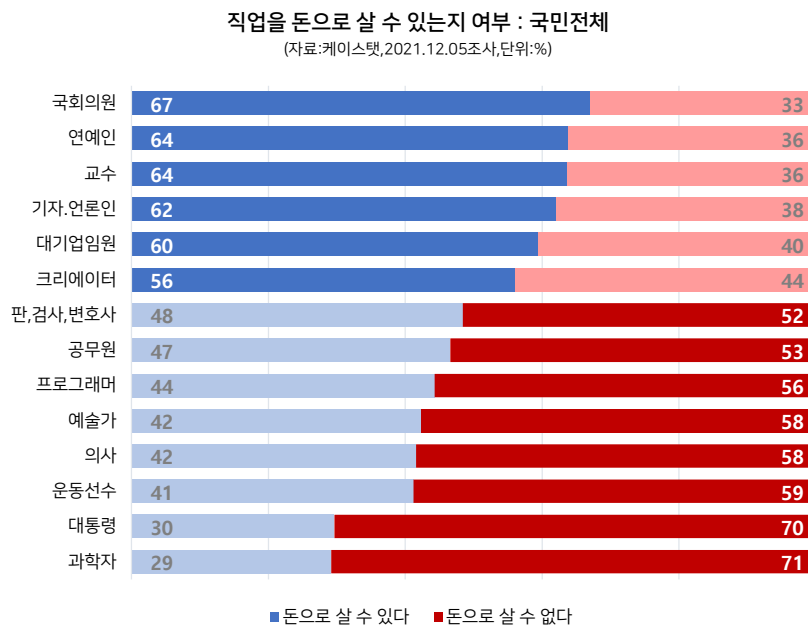
Kstat Point

- ☑ 가치에 매긴 금액을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치들은 금액이 높고, 관계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치들은 금액이 낮음
 - : ‘건강’, ‘권력’, ‘시간’, ‘젊음’ 등은 개인적이고, ‘사랑’, ‘우정’, ‘인격’ 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가치임
- ☑ 우리 국민들은 타인과의 관계보다 개인적인 가치와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임

직업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돈으로 살 수 있는 직업 : '국회의원' 가장 많아

-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직업 중에서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직업은 '국회의원'(67%)이고, 다음은 '연예인'(64%), '교수'(64%), '기자.언론인'(62%), '대기업 임원'(60%), '크리에이터(동영상 창작)'(56%) 순으로 조사됨
- “선생님은 지금의 우리사회를 돌아볼 때, 다음의 직업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 후 모두 14가지 직업을 제시한 결과임
- 이에 비해 다른 직업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돈으로 살 수 없는 직업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한 직업은 '과학자'(71%)이고, 다음으로 '대통령'(70%), '운동선수'(59%)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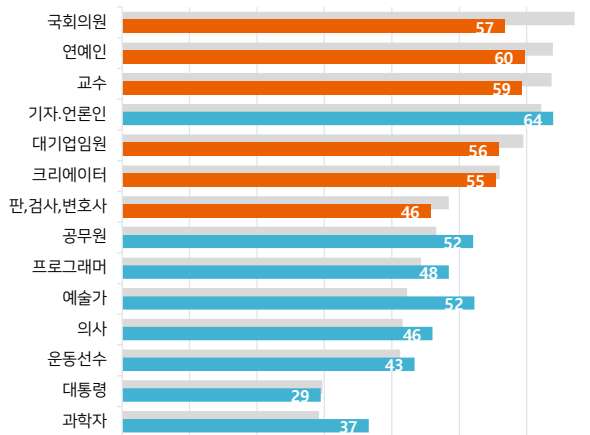
Kstat Point

- ☑ 한국사회에서 가장 높은 권력은 '대통령'이고 다음은 '국회의원'이라 말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두 권력에 대해 매우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음
 - :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응답이 '대통령'은 30%인데 비해 '국회의원'은 67%에 달함
 - :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지만, 국회의원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이 작용한 결과로 보임
 - : 이전 조사에서도 이러한 생각이 확인됨 ([케이스탯 리포트 40호 『선거에 대한 국민의식 집중 분석』 참고](#))
- ☑ 한편,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직업일 경우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경향을 보임
 - : '교수'는 지성의 상징에서 멀어진지 오래이고, '기자.언론인'은 이른바 '기레기'라는 오명을 듣고 있음
- ☑ 이에 비해 전문성이 확실한 직업일 경우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응답이 적게 나타남
 - : '과학자'가 대표적이고, '운동선수', '의사', '예술가' 등은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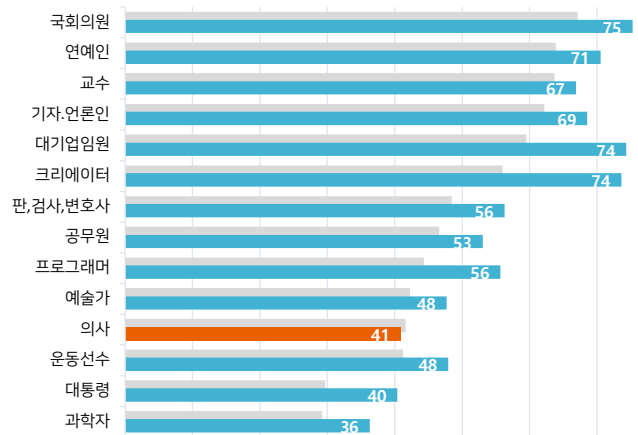
□ 남자 20대, 다른 2030세대와 차이 있어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2030세대의 경우 남자 18~20대와 다른 성/연령간의 차이가 있음
- 여자 18~20대, 남자 30대, 여자 30대는 거의 모든 직업에 대해 국민 전체보다 높은 비중으로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응답함
 -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 전체 '돈으로 살 수 있다' 응답 비중이고, 국민 전체보다 낮으면 주황색 막대로, 높으면 푸른색 막대로 표시함
- 그러나 남자 18~20대의 경우 다른 2030세대에 비해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응답이 낮음
 - 특히 국민 전체적으로 상위에 위치한 직업군에서 국민 전체보다 낮은 응답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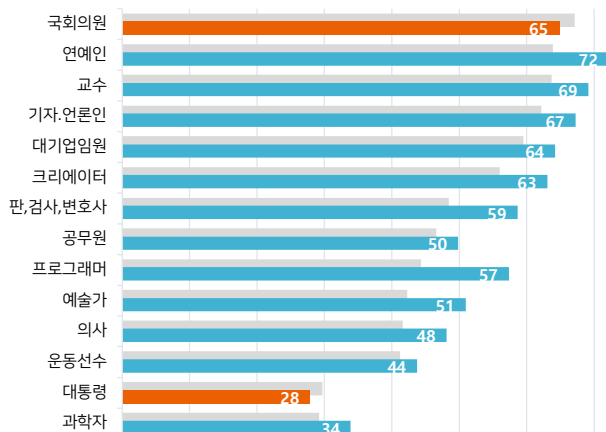
직업, '돈으로 살 수 있다' 비중 : 20대 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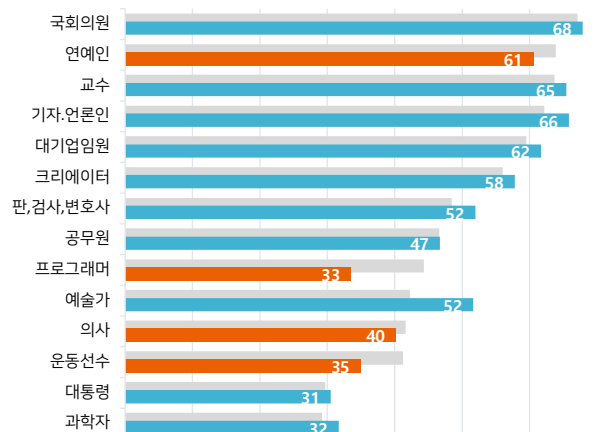
직업, '돈으로 살 수 있다' 비중 : 20대 여 (단위:%)



직업, '돈으로 살 수 있다' 비중 : 30대 남 (단위:%)



직업, '돈으로 살 수 있다' 비중 : 30대 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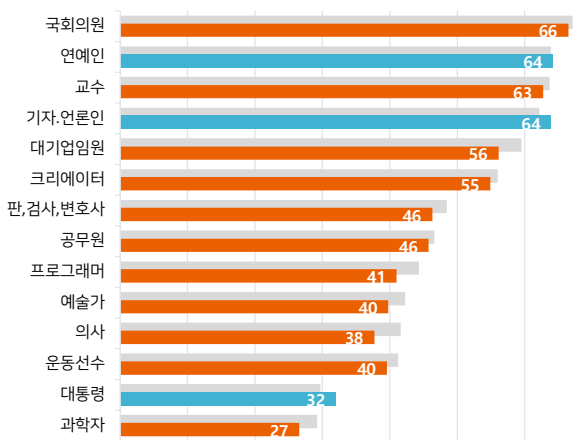
Kstat Point

- ☑ 여자 18~20대는 거의 모든 직업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응답 비중도 가장 높음
 - : 이는 여자 18~20대가 '시장사회'를 선호해서라기 보다, 소수 특권층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돈으로 거래되는 '시장사회' 현실에 냉소적으로 반응한 결과로 보임
- ☑ 반대로 남자 18~20대는 다른 2030세대에 비해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두드러지게 약함
 - : 남자 18~20대는 '시장사회' 흐름을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의지(각자도생 의지)가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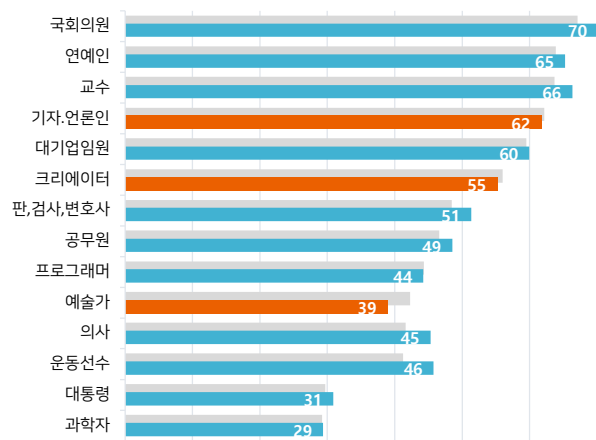
□ 4060세대, 50대만 매우 다른 모습 보여

- 가치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응답에서 50대와 60대는 국민 전체보다 낮은 응답을 보였지만, 직업에 대해서는 50대와 60대 이상의 생각이 매우 다름
 -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 전체 ‘돈으로 살 수 있다’ 응답 비중이고, 국민 전체보다 낮으면 주황색 막대로, 높으면 푸른색 막대로 표시함
- 오히려 40대가 60대 이상과 비슷하게 국민 전체보다 낮은 응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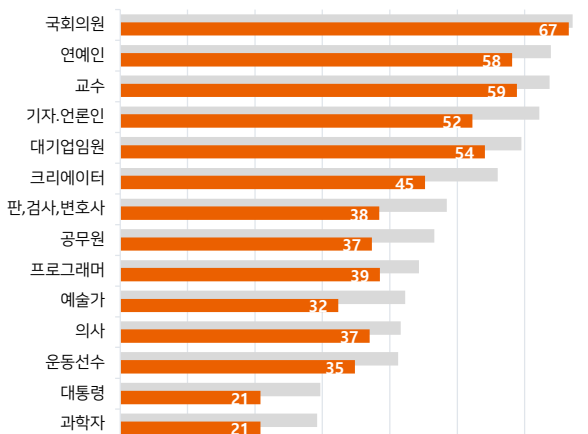
직업, '돈으로 살 수 있다' 비중 : 40대 (단위:%)



직업, '돈으로 살 수 있다' 비중 : 50대 (단위:%)



직업, '돈으로 살 수 있다' 비중 : 60대이상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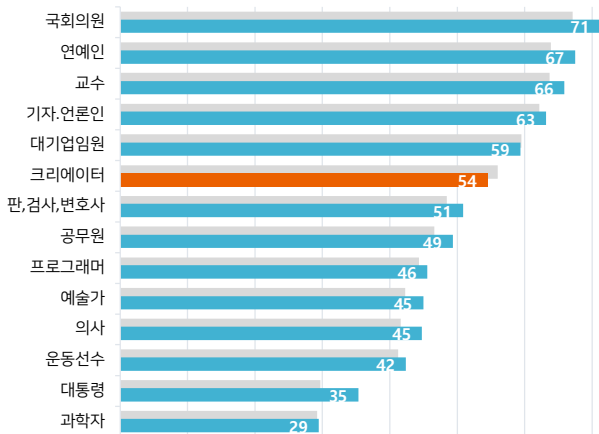
Kstat Point

- ☑ 60대 이상은 ‘가치’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도 낮고, ‘직업’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도 낮음
 - : 과거의 사고방식에 익숙한 60대 이상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시장사회’ 흐름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음
 - : 40대도 직업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좇아가기가 버거운 것이 현실임
- ☑ 이렇게 볼 때 50대의 반응이 특이한데, 이는 ‘한국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50대’라는 세대적 특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50대는 우리 사회 거의 모든 곳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세대이고, ‘시장사회’ 흐름 역시 한국사회에 정착시킨 세대임
 - : 50대 스스로도 한국사회를 주도한다는 생각이 강함 (케이스탯 리포트 37호 『한국민 ‘세대 의식’ 집중 분석』 참고)
 - : ‘시장사회’가 정착되는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기에 ‘직업’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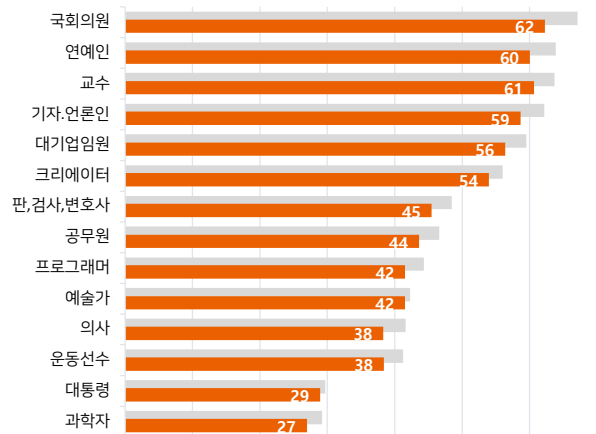
□ 진보층, '직업'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 강해

- 보수층과 진보층은 '직업'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응답이 국민 전체보다 높고, 진보층이 특히 높음
 -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 전체 '돈으로 살 수 있다' 응답 비중이고, 국민 전체보다 낮으면 주황색 막대로, 높으면 푸른색 막대로 표시함
- 중도층은 거의 모든 직업에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비중이 국민 전체보다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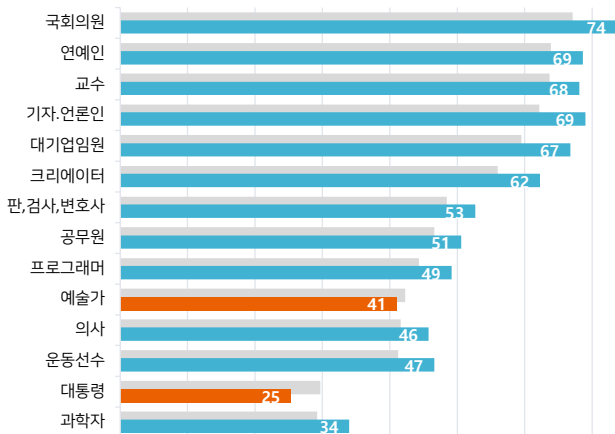
직업, '돈으로 살 수 있다' 비중 : 보수층 (단위:%)



직업, '돈으로 살 수 있다' 비중 : 중도층 (단위:%)



직업, '돈으로 살 수 있다' 비중 : 진보층 (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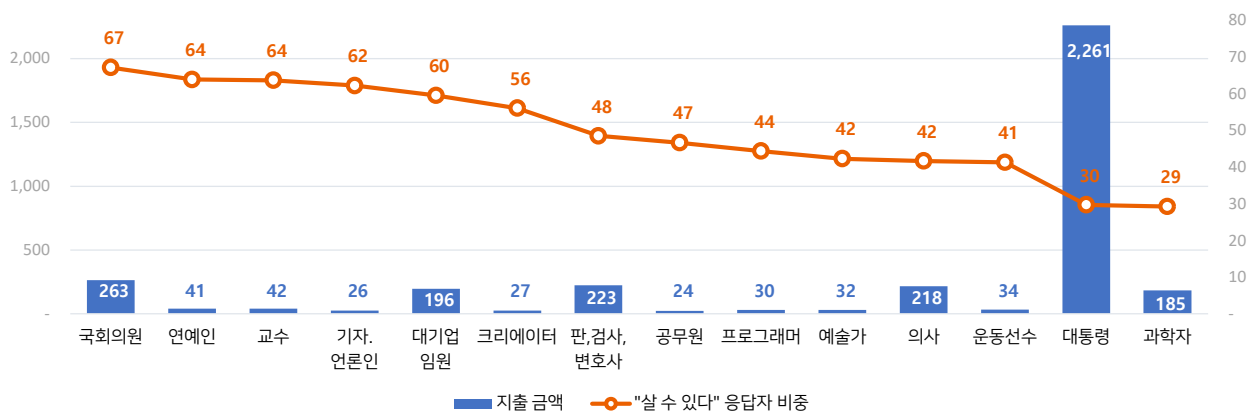
- ☑ 앞서 '가치'에 대한 태도에서 보수층과 진보층 간의 생각 차이가 없었는데, '직업'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없음
 - : 시장을 불신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진보층은 '시장사회' 현실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야 하지만, 한국사회의 진보층은 오히려 '시장사회'를 옹호하는 모습임
 - : 이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 이념 지형이 서구 사회와 다르기 때문임
- ☑ 한편, 보수·진보층 모두에서 '국회의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응답이 높은 것은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대통령'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응답이 낮지만, '국회의원'은 압도적으로 높음
 - : 이른바 '정치개혁'에 국민적 갈망이 높고, 개혁의 대상은 '국회의원'에 있음

□ 직업에 가격을 매긴다면 : '대통령' 압도적 높아

- 직업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응답자들은 '대통령'을 사는데 가장 높은 금액을 지출하겠다고 응답함
 - "만약에 선생님이 세계적인 부자로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직업을 갖기 위해 얼마의 돈을 지출하시겠어요?"라는 질문 후 자유롭게 액수를 기입토록 한 결과임
- '대통령'은 22억6100만원 이라는 압도적 금액을 기록했고, 다음은 '국회의원' 2억6300만원으로 조사됨
- 지출 금액이 가장 낮은 직업은 '공무원'으로 2400만원이고, 다음은 '기자.언론인' 2600만원, '크리에이터' 2700만원 등임

'직업' 갖기 위해 지출할 금액 : '살 수 있다' 응답자 전체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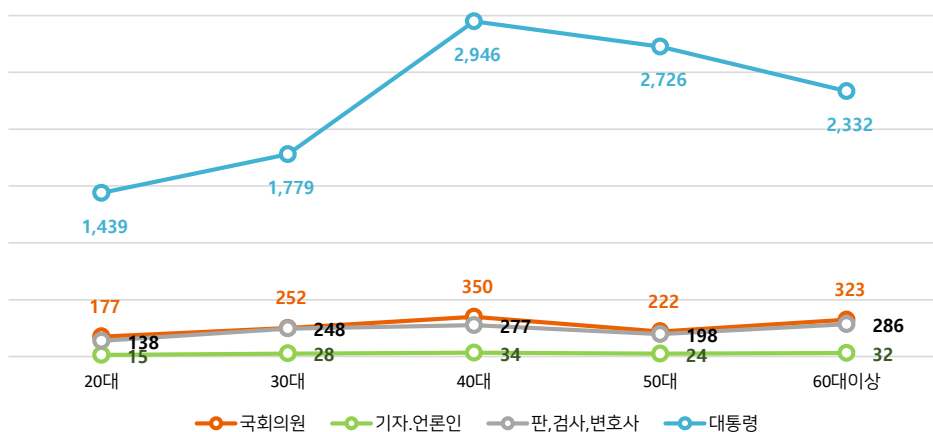
(자료:케이스탯,2021.12.05조사,단위:백만원,%)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대통령'이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한 가운데 40대가 가장 높은 금액을, 20대가 가장 낮은 금액을 지출하겠다고 응답함

'직업' 갖기 위해 지출할 금액 : '살 수 있다' 응답자, 연령별 평균

(자료:케이스탯,2021.12.05조사,단위:백만원)



Kstat Point

- ☑ 67%의 국민이 '국회의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응답하고, 지출 금액은 평균 2억6300만원으로 조사됨
: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이 우호적이지 않음은 물론, 가격 면에서도 비교적 저렴하게 보고 있음
- ☑ 대통령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에 대해서도 낮은 금액을 책정했는데, 그만큼 '시장사회' 현실에 냉소적인 것으로 보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가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43호, 44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43호와 44호는

각각 2022년 1월 13일(목요일), 1월 27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